

# 2016 AHR EXPO 참관기

- 이영준 연구기획관리실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지난 1월 25일~27일 3일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Orlando)에서 개최된 2016 AHR EXPO( International Air-Conditioning, Heating, Refrigerating Exposition)를 참관하였다. 미국공조냉동공학회(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주최로 ASHRAE 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된 이번 EXPO에는 전세계 42개국에서 2,059개 업체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등 27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냉동공조설비, 난방설비, 환기설비, 자동제어설비,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급배수설비, 각종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계설비 관련제품이 총 망라되다시피

한 이번 EXPO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물인터넷(IoT)과 연계된 설비시스템의 일반화와 중국기업의 대거 진출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중국기업들은 비록 제품의 질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았지만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무려 218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시회에 참여한 김기석 공제조합 이사장은 “앞으로 회원사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같은 EXPO에 적극 참여하여 첨단기술 정보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백종윤 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앞으로 협회 회원들이 글로벌 첨단기술을 자주 접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협회차원에서 EXPO 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SHRAE Underwood 회장과 백종윤 협회 서울시회 회장, 김기석 조합 이사장, 이연구 연구원 원장



기념품을 전달하는 백종윤 협회 서울시회 회장


1월 26일 오후에는 올랜도 힐튼호텔에서 ASHRAE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ASHRAE측에서는 David Underwood 회장과 Jeff Littleton 부회장 및 Bjarne Olesen 차차기회장이 참석하였다. 이연구 연구원장은 우리측 참석자들을 일일이 소개한 후, 이번 방문의 의의와 앞으로의 협력가능성 등을 설명하였다. Underwood 회장은 우리 협회/조합/연구원과 ASHRAE의 상호협력에 적극 동의하면서 추후 4월 초 방문 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백종윤 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Underwood 회장에게 미리 준비해간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한편, ASHRAE 회원인 연구원의 이연구 원장과 류형규 실장 및 이영준 실장은 ASHRAE Conference에 참가하여 학술세미나 참석 및 외부전문가들과의 교류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이번 ASHRAE Conference에는 약 4,200여 회원이 참가하였으며, 논문발표와 함께 각종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협회/조합/연구원의 2016 AHR EXPO 공동참

가는 급하게 결정된 관계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일정 중에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다. 이와같은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EXPO 참여의 차원을 넘어, 기계설비건설산업의 중심이 되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기술의 현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국제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EXPO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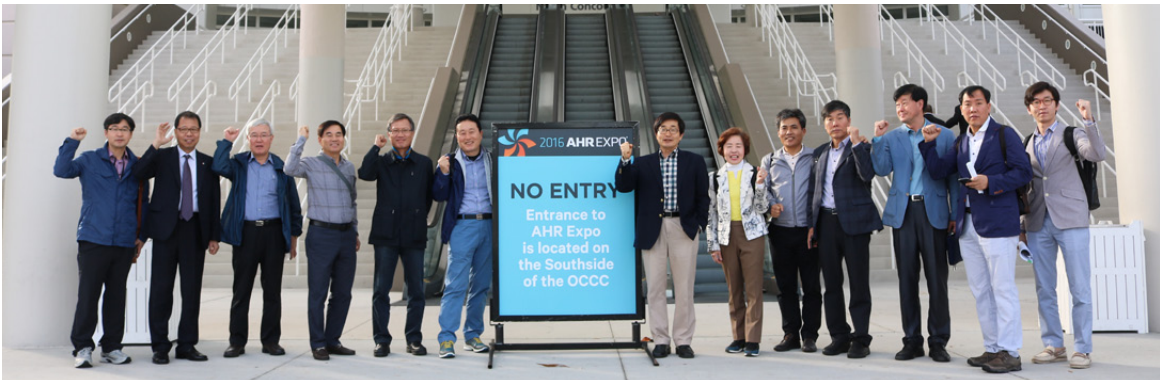
- 연구원
  - 이연구 원장, 류형규 실장, 이영준 실장
- 협회
  - 백종윤 서울시회 회장, 정달홍 부회장, 심기석 이사, 전치권 이사, 이용섭 서울시회 부회장, 조인호 · 최두현 서울시회 운영위원, 조현일 본회 본부장
- 조합
  - 김기석 이사장, 민영기 차장, 이정섭 대리 



간담회를 끝내고 기념촬영



ASHRAE Conference장에서 이영준 실장, 정재원 (한양대 교수), 임재한(이화여대 교수), 류형규 실장



EXPO가 열리는 컨벤션센터 앞에서 참석자 기념촬영



EXPO 입구에서 좌로부터 최두현 서울시회 운영위원, 이영준 실장, 정달홍 부회장, 이용섭 서울시회 부회장, 이연구 원장, 전치권 이사, 심기석 이사, 백중윤 서울시회 회장, 조인호 서울시회 운영위원



EXPO 현장에서 제품 문의 중인 심기석 이사, 백중윤 서울시회 회장, 정달홍 부회장, 조현일 분회 본부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15일 건축센터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를 주관했다

## ‘의료설비 전염성 공기질병 예방을 위한 학술세미나’ 주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과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류진상)는 공동으로 지난 1월 15일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의료설비 전염성 공기질병 예방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난해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내의 호흡기 감염을 막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환기 시설’을 진단해 보고 관련 제도개선과 시설개선 사항을 점검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대한설비공학회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기계설비 관련 학술단체 및 업체가 참가했다.

서장후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기호 한국설비연구 대표, 이송우 우원엠엔이 전무, 김언성 성아이엔지 전무, 성민기 세종대 교수, 박진철 중앙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학계, 업계 등 참석자들이 발표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내용	발표자
국내의료시설의 실내공기환경 현황	강기호 한국설비연구 대표
국내의료시설의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문제점 분석	이송우 우원엠엔이 전무
국내외 의료시설 관련 법규 검토	김언성 성아이엔지 전무
의료시설에서의 감염과 환기	성민기 세종대 교수
의료시설의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개선방안	박진철 중앙대 교수